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2023 제98호 06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ISSN 2671-9754

요즘 제주에는 서로 다른 별빛이 반짝인다. 청회색 밤하늘을 수놓는 별, 치열한 생업 현장을 밝히는 집어등 그리고 청정한 숲속을 불빛으로 신호하는 반딧불이다. 그중에서도 반딧불이는 이맘때쯤 가장 밝게 제 몸을 밝힌다. 세 갈래 별빛이지만 하나같이 제주의 자연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깨끗하고 소중하게 관리해야 다음 세대와 공유할 수 있다. 사진/김성훈(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도지회 부회장

# 도정 역점사업 안건 관심 쏠려

**제4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8일까지 16일간 일정 이어가**
**도·교육청 2022년 결산 심사**
**"세계농아인대회 관심 촉구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3일 16일간의 일정으로 제4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다. 또한 제주도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공통으로 과다한 불용예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전체 예산 8조 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도 2% 증가한 것이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질타와 함께 적극적인 개선이 주문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주목을 받았다. 곶자왈을 보호·관리·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심사 보류됐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12.5MW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명이며,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로 1년이다.

한편 김경학 의장은 13일 개회사를 통해 오는 7월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 관심을 촉구했다.

김경학 의장은 "세계 농아인들의 축제인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가 7월11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며 "한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세계 130여 개국에서 2천여명이 모여 당사자 인권과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의 농아인 복지정책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한 대회 준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 지면 안내

종 합 ▸1
임시회/정례회 ▸2
제주포럼 의회세션 ▸3

상임위 쟁점 ▸4~6
생생 의정활동 ▸7~8
전반기 조례안 ▸9~10
함께합시다 ▸11
의회 사무처 소식 ▸12

# “과다한 불용예산·이월 반복 근절해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건전한 재정운영 강조**

김경학 의장이 지난 13일 열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 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54곳에 달했으며 전년보다 열다섯개 부서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재외동포청이 제주에 들어서길 희망했지만,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관광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한 노력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항공권 좌석난이 관광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한편 “최근 한동수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라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의 확충 등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과 백신 접종 후 12일 만에 숨진 고 이유빈양의 억울함과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 원포인트 임시회…심사보류 추경안 통과

**5일 제417회 임시회 열어**
**제주도 추경예산안 의결**
**57개 사업·189억원 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월 제417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4128억원으로, 본회의 직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7개 사업에 189억원을 조정했다.

논란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는 161억원 중 25억원이 삭감됐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아동건강 체험 활동비도 53억원 중 21억7000만원, 제주대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매입비 89억원 중 40억원 등이 줄었다.

삭감된 예산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위험도로 정비사업, 주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 보수 등에 증액 편성됐다.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사보류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추경예산안 심사를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하지만 편성과 심의라는 권한이 서로 배타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되, 대승적 관점에서의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특히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앞두고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상호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의견을 교환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교훈 삼아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의회 역시 도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목적성 있는 심의와 더불어 더 많은 소통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실행가능한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추경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사 보류된 바 있다.

# "외교주체 중앙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6월 1일 ICC삼다홀서 열려…국내·외 관계자 등 참석
## 지방화 추세, 지방의회 자체 공공외교 모델 구축 논의

세계화, 지방화 추세에 따른 지방외교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의회 자체의 공공외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6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개최한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션에서 이같이 나왔다.

이번 세션은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과 시키다 히로아키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이 기조발표에 나섰다.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은 "사상 초유의 위기의 시대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다. 경제·환경·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밀착된 생활 외교를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상생의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의회 간 협력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키다 히로아키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는 지난 2015년 가나가와 현의회에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교류가 시작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경학 의장을 필두로 한 방문단이 가나가와 현의회에 방문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교류가 재개됐다"며 "지역 차원의 다양한 교류를 국제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상호 이해 증진과 상호 신뢰관계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왕 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 이치카와 가즈히로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참석한 토론이 이어졌다.

왕루신 주제주중국총영사관 총영사는 "글로벌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글로벌 협력과 외교다. 이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게 중요하다"며 "지방의회는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간 교류는 의원들의 외유성 방문이 아니라 지역을 홍보하고 일종의 상호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외교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김경학 의장님이 한국의 지방의회 의장으로는 최초로 중국을 방문했다. 일련의 협력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이후 실질적인 경제 교류도 이뤄졌다. 제주도의회가 일종의 견인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치카와 가즈히로 일본 가나가와현의회 의원 역시 "외교라는 건 서로의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이벤트와 세레머니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며 지방 의회 간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공공외교는 우리가 교류하려고 하는 상대국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교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력을 알리고 그들에게 우리를 매료시킬 수 있는 외교가 공공외교의 기본 개념"이라며 "지방외교에 대해 국가의 법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교 관련된 통합적인 조례와 예산 배정이 마련돼 지속성을 갖췄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신원득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이사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공공외교의 가치를 세가지로 정리했다.

신원득 이사는 "지방의회의 공공외교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는 편의성, 지방에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문화축제, 장애인 축제 등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일본 냉각기가 있던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지방은 별개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국가의 외교와는 다른 지방 공공외교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의회 외교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상 국외 출장이다. 공공외교는 방문 외교, 초청외교로 분류되는데 공무상 국외 출장으로 한정지어 보면 안된다"며 "해외 출장 예산에 대해서도 얼마 되지 않는다. 예산 편성 기준 때문에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다. 공무 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를 포함해서 지방 의회 의원들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주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준비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철남 위원장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의 입장에서 의회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 의회의 외교 철학을 세우는 기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촌이 세계화에 접어들면서 지방 의회 차원의 국제교류가 활발해지고 의원들의 교류 활동도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런 지방의회에서의 국제교류가 외교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외교의 주체가 점차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공공외교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외교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금 통폐합, 규모 확대 추진해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인력 낭비…손질 필요**
**기간제근로자 차별 도마위**
**우려되는 제주 재정 상황**
**관련 전문가 확보 등 주문**

지난 15일 열린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지역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도마에 올랐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지원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차별적 처우로 명시하고 있다. 차별 없이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권 의원은 "재무회계 결산상에는 이런 상황이 예견돼 있음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이어 20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기금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그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별도 설치 운용하는 기금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며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집행기관에서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사업비 비율이 상당히 낮다"며 "기금 운용을 25개로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나. 행정 낭비이자 인력 낭비"라고 꼬집었다.

강철남 위원장도 "기금을 25개에서 20개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소극적이지 않나. 제주도가 예산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것도 아닌데 전국 평균인 15.7개 보다 많다"며 "이왕 세울 것이라면 내·외부 의견도 수렴해서 더 과감히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제주도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주문하며, "국가 간은 외교 문제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풀어가면 좋을 것 같다.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인공지능 챗GTP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주문을 내놨다. 한동수 의원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챗GTP 행정활용계획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행정 전반에 과학에 기반한 혁신기술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예비비 집행 우선순위 고민해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비용 집행**
**일반 예비비 먼저 사용돼**
**지구대·파출소 이관 거론도**
**"훈련·사후 조치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김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제41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용하는 도관광협회 건물이 보조금으로 건립됨에 따라 임대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강하영 의원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관광협회 소유로 알고 있다. 이 건물은 보조금을 받아서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자치경찰단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이관 문제를 거론하며 "박기남 단장이 자치경찰에 오기 전 국가경찰 소속이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이 국가경찰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하는 데 따른 훈련과 사후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 "성인지 결산 집행률에 대한 달성률은 76.3%인데다 관련 사업들도 성인지, 양성평등, 성별영향 평가 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라며 "사업 연관성이 없어 보이거나 애매모호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이·미용 지원 사업을 지적하며 "취지는 좋지만 이를 통해 보건위생 수준이 향상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사업 시작한지 29년이 지났는데도 요금에 변화가 없다. 현실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애인 구강관리 센터와 관련해 "권역 장애인 구강 관리센터인 제주대 병원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전사자 묘비 정비와 관련해 양 행정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 "서귀포시 실적이 저조한 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으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예비비 지출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재난이나 재해 관련된 목적 예비비가 있음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반 예비비를 먼저 썼다"라며 "예비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 불용액이 나온 54개 부서 중 14개 부서가 보건복지안전위 소속"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예산 산출 데이터에 재난 상황 속에서도 불용 가능성이 큰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환경도시위원회

**20일 회의서 개정안 심의**
**보호·관리·원형훼손 세분화**
**"특별법 위임 범위 넘어서"**
**법률 근거 등 재검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제출한 곶자왈 조례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20일 제418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조례에서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 훼손지역으로 곶자왈을 세분화, 등급화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곶자왈 보호 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조례에서 토지매수청구권을 보호 지역 내로 한정하는 것인지,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며 "보호지역 경계 필지 외에도 관리 중인 원형 훼손 지역이 상당히 넓다. 개발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이후 상위법에 조례 내용을 반영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조항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곶자왈 매입을 위해 연간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곶자왈 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이 매수 청구를 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선별적인 매입을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례에 대한 문제를 꼽아보자면 등급을 세분화한 것, 세분화한 지역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다 토지매수청구대상 지역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라며 "관리보전지역과 비교해서 제주특별법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상위법과의 문제, 규정의 모호함 등으로 조례가 효력이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 역시 "토지매수청구권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어 도에서 토지를 매수해야 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토지매수 청구를 해야 한다는 강제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의견을 모아 "조례안이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과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6일 제주양돈농협을 찾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한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 지난해 보조사업 아직도 정산 못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체육 분야 절반 미정산**
**이월액도 전년보다 늘어**
**매년 반복, 특단 조치 시급**
**"미술관 건립 기준 필요"**

문화·체육 분야 보조사업들에 대한 정산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가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같이 제기됐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난해 열린 아시아 작가 교류전과 한·중 수교 30주년 전시회 사업 정산이 안됐다"며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이 안 된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승아 위원장도 "사업이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정산 중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언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냐"며 "체육 쪽에 정산 중인 게 50%가 넘는다"고 미정산 문제를 꼬집었다.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들도 잇따라 제기됐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문화관광체육위 소관 이월액이 전년 대비 28%나 늘었다. 이월사업을 남용하는 것이냐"라며 "이월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주문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역시 "이월 금액이 꽤 많다. 집행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예산 신청에서부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월금, 보조금 반납, 불용 등 예산에서 결산까지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20억원"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며 "코로나19로 도민 대상 공연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지만, 해외 공연으로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찾아가는 무용단' 운영과 관련해 편성된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승아 위원장은 최근 '작가' 이름을 내건 미술관 건립 요청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 도에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14일 도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 그린수소 사업…'주민 수용성' 확보돼야

농수축경제위원회

**대규모 사업에 '소통 부재'**
**주민 설득 기준 마련 필요**
**감귤가공 '상품' 전제 주문**
**"관련 정책 정비해야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가 지난 16일 제418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12.5MW그린수소 실증사업 관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심사보류 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12.5㎿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정부 출연금 296억원과 민간 324억원 등 총 62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의원들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주민 수용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주민 수용성 부분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을 만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잡아서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 역시 "사고가 터지면 큰일"이라며 "촘촘하게 확인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도 "어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감귤가공사업이 '상품'을 활용해 고급화하는 등 관련 정책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들도 나왔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활용해 감귤이 주는 장점을 부각하고 연구해서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공사업의 원물을 '상품' 위주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도 "농축액이라 하면 비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 감귤 농가에 제값을 주고 상품을 가지고 농축액을 잘 만들면 국내·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감귤가공사업이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있다. 도민의 산업을 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건 안될 일"이라며 "개발공사 설립 당시 먹는 샘물과 감귤가공사업이 우선이었는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강연호 위원장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개발한 '전자해양부이'에 대해 "어업인들의 조업 시간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수의 어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시책이 필요로 해 보인다"고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 "교사 비교육적 행태 개선 방법 강구해야"

교육위원회

**학생 폭언 추가 제보 공개**
**학생-학교 신뢰관계 무너져**
**이월·불용액 매년 반복 지적**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20일 제418회 1차 정례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기출문제 재출제 문제가 빚어졌던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제보까지 나오면서 철저한 사실 관계 조사가 주문됐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생들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보한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주장의 사실관계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문제가 되는 교사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학생이 가장 신뢰해야 할 곳이 학교인데 그게 무너졌다. 교육청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교육청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는 한편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결산 관련해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2022년도 결산 총괄 현황을 보면 1억 이상 불용예산 31건, 10억 이상이 집행 잔액 남은 건 5건으로 10억 이상 불용액이 예상된다면 정리 추경에서 예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교육시설 계속비가 이월액으로 66.5%에 이른다"며 "지난해 48개 중 10개 사업은 전액 미집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용담2동)도 "반복되는 질의, 답변이 몇 년째 똑같다. 불용액도 300억에 가깝다. 몇 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고,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본청 시설 관련 예산 약 13억원 가운데 불용액이 5억여원인데, 이게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정전에 따른 데이터센터가 먹통이 됐던 것과 관련해 "예전에 있었던 사례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지만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며 본청과 협의해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서귀포시 대정읍 국제학교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 2010년 설립한 NLCS와 지난 2011년 들어선 BHA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국제학교와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인원 및 대상 확대 △국제학교 지도·감독권 마련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대한 제주도민 공감대 형성 등도 주문했다.

# "맛과 영양 담긴 '천원의 아침밥' 약속"

**도의회, 청년이 행복한 제주**
**14일 오전 제주대학교 방문**
**대학생들과 개선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대표의원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는 지난 14일 오전 제주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 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부터 시행중인 '천원의 아침밥'은 학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 지자체가 2000원을 지원하고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한동수 대표의원, 한권(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강경흠(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이상봉(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의원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아침 식사 운영 시간 연장을 통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맛과 메뉴가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각 대학 대학생들과 의회와의 채널을 구축해 끊임없이 쌍방향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동수 대표의원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4000원 수준의 아침밥을 5000원으로 끌어올려 맛과 영양이 담긴 천원의 아침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2023년 제1회 추경에 '천원의 아침밥' 예산을 1억원으로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향상에 노력"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단체장 간담회 열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배문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협의회장 및 8개 보훈 단체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양병우 부위원장(무소속, 대정읍), 양홍준 제주도 보훈청장이 참석해 보훈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경학 의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문화 보훈단체협의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도의회에서 보훈단체 대표를 초청해 경청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보훈단체는 국가와 도정 발전을 위해 뒷받침해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단체 대표들은 △유공자 전적지 순례 시 고령 유공자를 위한 보호자 동행 지원 △전적지 순례 지역 다양화 △유공자 선양 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 "정신건강증진, 지자체 대응 필요"

**제1회 제주사회복지포럼**
**5월26일 전문가 등 참석**
**개별 지원 계획 수립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제주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전진아 센터장의 '정신장애 자립생활 지원방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전진아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정신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정신장애인의 건강 상태, 자립 의지와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사회 기반 장애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이용에서의 제약에 대한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정득 센터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동일직급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및 인건비가이드 라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 도의회, 몽골과 새로운 교류 물꼬

**5월19~24일 방문단**
**시의회 및 기관 찾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회, 노동·복지청 등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부족 등 현안 문제와 1차 농산물 분야 수출 관련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제주지역의 계절근로자 현안 문제 관련해서는 울란바토르 노동·복지청 관계자 미팅을 통해 계절근로자 활용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몽골은 10월부터 4월까지 모든 경제 활동 및 수요가 멈춰 있는 비수기로, 제주지역 감귤 및 월동 채소 등 일손이 제일 부족한 시기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을 위한 비자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몽골 방문단은 수출과 관련해 현지 코트라를 방문, 제주의 감귤 농축액을 홍보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감귤농축액이 현지에서 시장성이 있을 것 같다"며 향후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등 실질적인 단계별 수출 전략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울란바토르 시의회도 "몽골과 교류하고 있는 제주와 교류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향후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제주도와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연호 위원장은 "이번 몽골 방문이 제주도의 실질적인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협상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들 지원 방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김경학 의장, 의정소통실서**
**서귀포시연청 관계자와 면담**
**청년회 활동 애로사항 청취**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서귀포시청 의정소통실에서 서귀포시연합청년회장단과의 면담을 갖고, 청년회 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과 강충룡(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강상수(국민의힘, 정방·중앙·천지·서홍동)·오승식(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정이운(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이 참석했다. 서귀포시연합청년회에서는 허은구 청년회장, 김지훈 상임부회장, 한순재 기획부장, 이동현 감사가 참석했다.

허은구 청년회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행사임에도 청년회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50%의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예산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와 사업예산 편성에 전향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장은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청년들이 재해예방 등 각종 봉사활동 사업은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해 시와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보조율과 관련해서도 사업별 성격과 규모 등을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개선도 요청하고, 적정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청에 의정소통실이 마련된 만큼 의회까지 방문하지 않고 이곳에서 지역 의원님들과 다양한 소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청 의정소통실은 서귀포시민과 지역 의원들과의 효율적인 소통 등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 "환경관리, 공단 운영 필요성 공감"

**환경도시위 15일 토론회서**
**전문가·시민 단체 등 참석**
**"주민 의견 수렴 이뤄져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화두로 제시됐으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송창권 위원장은 "공단 설립과 관련해 제주 미래에 도움이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시민 단체, 공단을 운영 중인 전문가 등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19년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 같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오수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생활SOC시설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을 분리하고 규모를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철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사업팀장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 특히 하수 처리장의 경우 주민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공공성이 높다"며 "일정 부분은 운영 면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이 하는 게 여러모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한 한편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은 "공단은 이익을 적립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장치 마련도 되어 있다"며 공단 설립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 관리 위상을 높이는 전문성을 갖추고 도민들에게 환경의 질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공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제주시설공단' 관련 조례가 발의됐지만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계획이 백지화됐었다.

# 현길호 의원, 제주도약사회 감사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지난달 28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학술제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현길호 의원은 평소 공공심야약국 정책과 도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선 한편 중독 약물 예방 교육 활성화 등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길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최근 약사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자판기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튀르키예 지진 성금을 모금하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마음이 앞선다. 앞으로도 약사회와 함께 도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정엽 의원, 거버넌스 정치대상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사)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3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지역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센터와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확산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우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거버넌스센터는 "'대륜동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 발전 사업인 '서귀포시 혁신도시 혁신화 방안'과 연계함으로써 양 사업 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상의 취지와 부합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정엽 의원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관계자,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대륜동 종합발전계획 추진 체계를 구성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형 마을 단위 종합발전 계획 수립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 제12대 전반기 의정 주요 안건 처리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초지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미 의원
공동발의: 이상봉·고의숙·강철남·현기종·홍인숙·강성의·송창권·한동수·양병우·박두화·하성용 의원

제주특별자치도내 초지의 관리와 활용을 통해 사료작물의 재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격리, 문화유산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여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초지 소유자는 초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초지의 다양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목초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형 초지 직불제 사업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 김기환 의원
공동발의: 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제정·운영.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운영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청소년 주간에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강동우 의원
공동발의: 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만족도 실태조사 △고교학점제 운영 위한 교육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계기관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송영훈 의원
공동발의: 이승아·정민구·강성의·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한권 의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 수립·시행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기환 의원
공동발의: 강경문·현기종·현지홍·박두화·하성용·이경심·강봉직·홍인숙·양경호 의원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계 공무원을 사고 조사요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사고조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고 조사 활동을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현길호 의원
공동발의: 이경심·강성의·박두화·송창권·이상봉·이승아·김경미·송영훈·강경문·원화자·고의숙·고태민 의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함.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여·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 제공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양영식 의원
공동발의: 박두화·홍인숙·송창권·강상수·강경문·고의숙·임정은·강봉직·한권·이남근·하성용·오승식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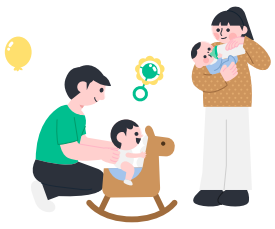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스포츠 의식을 북돋우고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스포츠 발전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은 매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은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 △스포츠의 날과 관련된 각종 기념 행사 △생활체육 운동경기 및 각종 행사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대진 의원
공동발의: 김황국·현길호·송영훈·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강충룡·강상수 의원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경계선지능 학생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 실시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강하영 의원
공동발의: 김기환·이상봉·강경문·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임정은·강봉직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학업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 지원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주거·활동·자립 지원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기환 의원
공동발의: 양홍식·이남근·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강하영·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매년 수립·시행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 개발 사업 추진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대표발의: 강경문 의원
공동발의: 하성용·오승식·임정은·강충룡·홍인숙·김기환·송창권·강상수·강동우·고의숙·양영식·원화자·이경심 의원

급격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다회용품 사용 촉진 △도민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등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남근 의원
공동발의: 강경문·오승식·이정엽·하성용·한권·양영식·현기종·홍인숙 의원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 스마트체육은 인공지능,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학교 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스마트체육 기본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 추진

신기한 제주어 ㉓

## 아스롭다/아사롭다/아숩다

(형용사) 아깝다. 안타깝다.

〈예문〉

"어디 경도 홉네까. 만약시 경훈뎅 ᄒᆞ민 나가 아스롭지 안 ᄒᆞ영 금돈 ᄒᆞᆫ 찰리 내쿠다."

· 경도 : 그렇게도 · 홉네까 : 합니까 · 만약시, 만약이 : 만약에
· 경훈뎅 ᄒᆞ민 : 그렇게 한다고 하면 · ᄒᆞᆫ : 한
· 찰리, 잘리, 차디 : 자루 · 내쿠다 : 내겠습니다.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 월별 | 회수 | 회 기 | 의사일정 | 주요처리안건 |
|---|---|---|---|---|
| 계 | 11회 | 총127일<br>· 정례회 2회/39일<br>· 임시회 9회/88일 | 본회의 30일<br>상임위 48일<br>예결위 18일<br>공휴일 31일 | |
| 2월 ~ 3월 | 제413회 임시회 | 2.24.(금) ~3.8.(수) (13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6일<br>공휴일 5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br>·2023년도 주요업무보고<br>·결산검사위원 선임<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3월 | 제414회 임시회 | 3.29.(수) (1일) | 본회의 1일 | ·안건 처리 |
| 4월 | 제415회 임시회 | 4.10.(월) ~4.21.(금) (12일) | 본회의 7일<br>상임위 3일<br>공휴일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5월 | 제416회 임시회 | 5.9.(화) ~5.19.(금) (11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예결위 3일<br>공휴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6월 | 제417회 임시회 | 6.5.(월) (1일) | 본회의 1일 |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br>·추경예산안 등 안건처리 |
| | 제418회 제1차 정례회 | 6.13.(화) ~6.28.(수) (16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5일<br>예결위 5일<br>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7월 | 제419회 임시회 | 7.12.(수) ~7.19.(수) (8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4일<br>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9월 | 제420회 임시회 | 9.8.(금) ~9.22.(금) (15일) | 본회의 7일<br>상임위 4일<br>공휴일 4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10월 | 제421회 임시회 | 10.10.(화) 10.~31.(화) (22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4일<br>공휴일 6일 | ·행정사무 감사<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11월 ~ 12월 | 제422회 제2차 정례회 | 11.14.(화) ~12.6.(수) (23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7일<br>예결위 8일<br>공휴일 6일 | ·2024년도 예산안<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12월 | 제423회 임시회 | 12.11(월) ~12.15.(금) (5일) | 본회의 2일<br>상임위 1일<br>예결위 2일 | ·제2회 추경예산안<br>·조례안 등 안건 처리<br>·현장방문 등 |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23일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 남 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학교별 통합운영, 예산과 시설의 공유로 효율적인 활용 가능해"**

0.78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자 대한민국을 뒤흔든 숫자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점점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질적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중앙정부는 각급 학교의 적정규모 학생 수를 유지·운영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와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를 비롯한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듯 보인다.

현재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은 과대·과밀학급 해소,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 밀집, 전반적인 인구 감소 등 원론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교육시스템의 지원 강화만으로는 향후 현상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제는 미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학교별 통합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 통합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교육의 효율성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필수의 과정이다.

소규모 학교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특색있게 운영할 수 있지만, 적정규모 학교 통합 운영은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능력 등 보다 풍부해지는 선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통합학교는 예산과 시설의 공유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이며, 학교시설 통합으로 생기는 유휴부지를 교육·문화·돌봄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을과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면 지역 사회의 호응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적정규모로의 학교 통합 운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성공과 성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이며, 과제인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통합학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혜안을 모아야 한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 '나만, 나 때만 피하자'는 생각을 갖는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마약 중독…건강 상실, 재산 탕진, 생명 위협

김 영 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주무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의 운명을 가른다는 것 명심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이란 양귀비, 아편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면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마약은 병의 고통과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처음 몇 번은 황홀경으로 기분이 좋지만 끊기가 어려운 중독성이 있으며 내성이 키워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섭취를 요구하게 된다.

끊었을 때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 각종 심한 고통이 나타나고, 뇌와 신경조직 파괴 등 건강상실, 급속한 노화, 모든 돈과 재산 탕진 등의 폐해도 발생시킨다.

그리고 중독이 된 이후에는 황홀경도 흐릿해지고 단지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제발 마약 주사를 놓아달라 요구하다 치사량 한계를 넘게 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

어쩌다 호기심과 주변사람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마약일지라도 마약류의 부작용들은 중독에 이르는 경우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 마약 오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는 치료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다.

또한 마약은 불법적인 범죄행위로 빠져들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약에 빠지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정상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값비싼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을 직접 판매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며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성이 높다.

위험성을 인식하고 마약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운명을 가른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 미생물로 똑똑하게 농사지어야 할 때

양 주 혁
제주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토양 환경 되살리고 탄소 배출량 저감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보탬되길"**

기상청에 따르면, 30년 후 제주도에서 홍수가 날 정도의 강력한 폭우는 지금보다 78%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지역보다 제주도 권역이 가장 우려스럽다. 이제 탄소 배출량 저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다.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 대비 4배 높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은 전국 평균보다 4배 높다.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토양이 산성화돼 작물에 유용한 미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유용 미생물이 적은 토양은 토양 물리성이 나쁘고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아 각종 병해충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토양의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해결의 열쇠는 '미생물'이 쥐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시중에 판매하는 미생물 제품을 사용하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미생물은 종류에 따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농사의 목적에 맞는 균을 사용해야 한다. 도내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미생물은 종류와 보증 균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성을 알고 미생물을 활용하는 농가는 효과를 체감하며 자연스럽게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미생물을 사용하는 똑똑한 농법으로 망가진 토양 환경을 되살리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 모의의회 경연대회 최우수 '제주외고·제주동중'

**9일 도의회 본회의장서**
**4개 고교·6개 중학교 참여**
**수상자 해외연수 제공**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 결과 제주외국어고등학교와 제주동중학교가 단체상 최우수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고등부 단체 최우수 영예를 안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중등부 단체 최우수로 선정된 제주동중학교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제로 다뤘다.

개인 최우수상에 고등부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문영선(의장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오여울(의원역)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김지담(5분자유발언 의원역), 중등부 △제주여자중학교 강승재(의장역) △오현중학교 김지우(의원역) △제주동중학교 정누리(5분자유발언 의원역) 등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최우수·우수 단체상 수상자와 최우수 개인상 수상자는 해외 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도의회는 2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단체상 고등부 우수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장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제주여자고등학교. 단체상 중등부 우수 △제주서중학교, 장려 △제주여자중학교·제주중학교. 개인상 고등부 우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지수민(의장역),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정유나·제주여자고등학교 김하림·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박예인(의원역)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강소이(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제주여자고등학교 김하림(5분자유발언 의원역). 개인상 중등부 우수 △제주중학교 홍승민(의장역), 제주동중학교 김가람·제주중학교 김준우·제주여자중학교 강지운(의원역), 제주서중학교 김윤희(5분자유발언 의원역), 장려 △노형중학교 진연수(5분자유발언 의원역). 지도교사상 제주외국어고등학교 박순정,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강서현,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이호준, 제주여자고등학교 김민재, 제주동중학교 이나현, 제주서중학교 이은미, 제주여자중학교 이다영, 제주중학교 최진 교사가 이름을 올렸다.

# 음악이 있는 직원조회 '눈길'

**5일 공감·소통의 날 일환**
**'낭그늘 힐링 콘서트'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6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 일환으로 '낭그늘 힐링 콘서트'를 펼쳤다.

이날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 아래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의 '눈이 부시게' 시낭송에 이어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의 희망의 세레나데가 펼쳐졌다. 강세나·홍주연·고혜아 주무관의 콜라보 공연과 도란도란 어린이 중창단의 초청 무대도 더해졌다.

김경학 의장은 "열린 공간에서 마련된 이색 직원 조회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서 의원 및 직원 간 거리를 좁히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부담없이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정 자료센터 우수 이용 직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

**15~17일 국회 등 방문**
**역량강화 및 활성화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6기 도의회 옴부즈맨 국내 우수사례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우수사례 현장 견학에서는 국내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옴부즈맨 활성화에 대한 박동명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상암 평화의 공원을 방문해 난지도 종료 매립장의 공원으로 탈바꿈하기까지의 성공사례를 살펴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성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도 마련됐다.

옴부즈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 가운데 △옴부즈맨 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분과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간 정보공유기회 확대 △옴부즈맨 자긍심 고취와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 활성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상혁 대표 옴부즈맨은 "옴부즈맨이 도의회와 도민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견학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12대 도의회 개원 1주년 7월3일 기념행사 개최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해 오는 7월3일 오후 4시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가 개최된다.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 의정 구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상황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위한 계기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개원 후 지난 1년의 기록을 담은 영상 상영을 비롯해 특별 강연과 유공자 표창 및 우수의정대상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청렴 실천' 및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 결의'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열린다.